

소비 위축·경기 침체 장기화...광주·전남 경기 전망 '우울'

4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0.3p·소비자심리지수 1.2p 하락

5월 중기 경기전망 3.1p 하락...내수 판매·수출 모두 하락

광주·전남지역의 4월 기업심리와 소비자심리, 5월 중소기업 전망 지수가 모두 전월 대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비 심리 모두 하락=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재 60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2025년 4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5로 전월보다 0.3p 하락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0.6으로 전월에 비해 0.4p 상승했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준치(100) 이상인 경우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이 아닌 경우에는 적음을 나타낸다.

제조업에서는 제품 재고(-2.5p)와 생산(-2.2p)이 기업심리지수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4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5.9로 전월 대비 1.2p 떨어졌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향후 소비 지출

전망 등이 드러나는 수치로, 기업심리지수와 마찬가지로 100보다 클 경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뜻한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이었다.

현재 생활형편 지수(80)는 전월보다 1.0p 하락했고 생활형편 전망지수(83)는 전월 대비 2.0p 줄어 들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라 우울한 기업 심리와 함께 소비자층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침울' = 다음달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역시 침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조

사'에 따르면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2로 전월 대비 3.1p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5.8p 줄어든 수치다.

광주는 전월(80.8) 대비 5.5p 하락한 75.3, 전남은 전월(78.0) 대비 1.0p 줄어든 77.0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제조업은 81.9로 전월보다 6.5p 줄었고 비제조업은 69.3로 전월 대비 0.5p 소폭 상승했다.

내수 판매, 수출 등에 대한 전망도 일제히 하락했다.

내수 판매는 전월 77.9에서 74.8로, 수출 전망은 전월 96.0에서 77.8로, 경상이익은 전월 75.7에서 69.6로 모두 줄어들었다. 2024년 5월 내수 판매 전망 79.5, 수출 전망 92.3, 경상이익 77.6으로 이번 전망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중소기업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암울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힌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ACT 엑스포 2025' 참가

제출 그레주아(왼쪽부터) 현대미국기술센터 디렉터, 켄 리미레즈 현대차 글로벌상용&수소사업본부 부사장, 짐 박 현대차 북미법인 상용&수소사업개발담당 전무가 'ACT 엑스포 2025'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 돕는다

5월 2~3일 나주·5월 16~25일 곡성서 동행축제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소비 촉진 행사인 '2025년 5월 동행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부스 운영 시간은 5월 2일 오후 2시부터 8시,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다.

동행축제는 정부·지자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총 1조 30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축제에는 나주 목사고을 시장, 나주 금빛상점가, 나주빛가람동 상인번영회 등 지역 상인들이 참여해 우수 제품과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5월 3일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는 나주시 주최 '어린이 큰 잔치'도 함께 열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권 동행축제는 나주에 이어 곡성에서도 열린다.

광주전남중기청은 5월 16~25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해 동행부스 축제를 운영한다.

이순석 광주전남중기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소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향토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HS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스판덱스 매출 견인

1분기 매출 8536억원

HS효성첨단소재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HS효성첨단소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853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영업 이익률은 5.8%였다.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보강재와 탄소섬유, 스판덱스 등 산업자재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산업자재 매출액은 741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타이어, 1분기 매출 1조2062억 '사상 최대'

전년 동기 대비 15.5% ↑

금호타이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2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늘었다"고 29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액은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확대와 고수익 타이어 등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의 복합적인 성장이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매출액은 1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영업 이익은 14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순이익은 1020억원으로 12.1% 늘었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인 '솔루스 어드밴스',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등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중국·미국·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8개 공장의 설비 효율화, 추가 설비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글로벌 타이어 생산 능력을 65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텔런트 라운지' 개설

컬처 핏 체험·조직문화 소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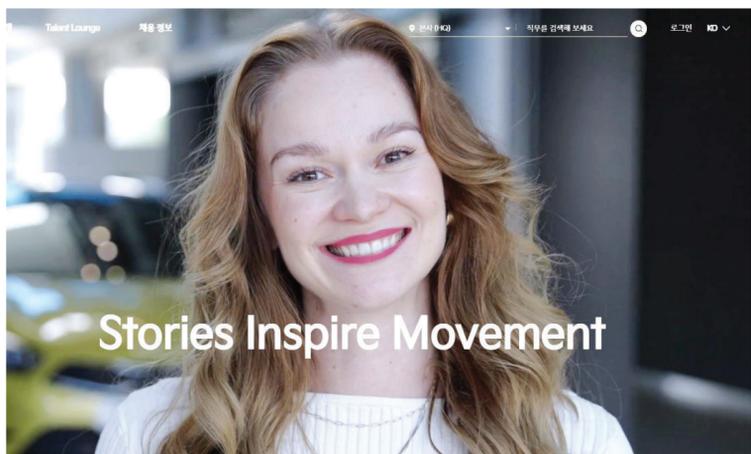
기아는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텔런트 라운지(Kia Talent Lounge)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아는 채용 공고와 업무 소개 중심이었던 기존 채용 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조직문화 활동과 구성원 성장 여정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 텔런트 라운지를 만들었다.

최근 인재 선발 과정에서 조직문화 적합도인 '컬처 핏(Culture Fit)'의 중요성이 커지고 일하는 방식과 소통 문화, 성장 가능한 업무 환경을 중시하는 구직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기아는 채용 추세에 맞춰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와 내부 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채용 브랜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채용 플랫폼 개설로 전 세계의 모든 채용 공고를 한 곳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텔런트 라운지는 ▲기아 구성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사람(People)' ▲기아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기반의 조직문화 활동을 소개하는 '문화(Culture)' ▲입사 이후 리더가 될 때까지의 성장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경력 개발(Career)' ▲입직된 개개인의 사연과 성장 이야기를 담은 '우리



기아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텔런트 라운지(Kia Talent Lounge)'를 개설했다. 기아 텔런트 라운지 메인 페이지. <기아 제공>

의 이야기(Our Stories)' 등으로 이뤄졌다.

기아 관계자는 "텔런트 라운지를 통해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서만 오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이야기를 통해 기아의 조직문화와 커리어

여정을 입사 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구성원의 자부심 고취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KIA 없이는 못살아~"...광주은행 '기아챔피언스카드' 흥행

출시 한달만에 3000좌 돌파

광주은행은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출시 1개월 만에 발급카드 수 3000좌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2025년 지역 야구 구단인 KIA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출시됐다.

해당 카드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 보유자들의 추가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발급 요청 중 77% 이상이 신규 발급일 정도로 KIA타이거즈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기아 챔피언스카드가 인기몰이를 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카드 혜택이 꼽힌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월 카드 실적 조건없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료를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하는 '킬러 서비스'가 있다. 이를 통해 야구장 방문이 잦은 야구팬



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장 내 티셔츠, F&B(식음료) 매장, 편의점, 일상생활 업종, 국내 5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디자인이 KIA타이거즈의 원정 유니폼, 홈 유니폼, 야구공, 구단 마스코트 등이 담긴 4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개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카드 발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 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이다. 연회비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이 각각 1만 4000원, 1만 5000원이다.

카드 발급은 광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KJ카드 헬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영 기자 zjang@kwangju.co.kr

'연 9%'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200만명 육박

금융위, 제도 개선 지속 약속

'연 9%대 적금 효과'를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가 2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윈스투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원 목돈을 쉼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올해 1월 납입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확대 지급하면서 수익 효과가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늘어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3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신형 기간(5월 2-

16일)에 200만명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강화,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5.42 (+16.56)
↑ 코스닥	726.46 (+7.05)
↓ 금리(국고채 39년)	2.310 (-0.006)
↓ 환율(USD)	1433.05 (-9.55)

<오후 4시 49분 기준>